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승표(서울 송인초 교사)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 개방성은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반면, 고정관념 및 차별은 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 요인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보편성 차원에서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중적 평가는 부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난민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주민과 구별되는 난민의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수업에서 난민 문제를 다룰 때는 난민의 다양한 상황과 목소리를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에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한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공감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시민교육과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난민, 난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수용성, 시민교육, 사회과교육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역사 내내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인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과 고통을 경험하는 집단이 발생하는데 이를 난민이라고 지칭한다(Barton & Ho, 2022: 197). 즉, 난민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실향민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이민자와 구별된다.

2023년에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유린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일로 인해 전 세계 1억 84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3,530만 명은 난민들이고, 약 41%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이다. 우리나라 또한 난민 신청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유한별·이양희, 2021: 292).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2023년 난민현황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수는 2013년 1,574명에서 2023년 12월 기준, 103,760명으로 약 66배나 증가했다. 난민신청을 한 아동·청소년 역시 2013년 69명에서 2023년에는 1,293명으로 증가하였다(난민인권센터, 2024)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난민 이슈에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2018년 제주 예멘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멘난민 사태 이전에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50-75%였으며, 예멘난민 사태 이후인 2022년까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75% 이상으로 나타났다(황태연·유정모·김화연, 2022: 149-150). 이는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인권 관점에서 당위적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박선운·안소현·박윤경, 2024: 53).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난민에 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여론은 난민법을 제정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난민신청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난민 또는 난민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수용 태도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숙·박선미, 2022; 박미숙·손영화, 2019). 이는 이주민 가운데에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수용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이민술·정상우, 2024: 68).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난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개선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민적 자질이기에 때문이다(홍승표, 2023: 28). 따라서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난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유한별·이양희, 2021; Celik, Kardaş Isler, & Saka, 2023).

한편, 전 세계 난민의 41%가 미성년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수용국 사회에 정착했을 때 직면하게 될 심각한 교육적 불이익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교육 측면에서 난민의 담론적 비가시성은 난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난민에 관한 연구는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소수의 연구만이 난민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고 있다(박미숙·손영화, 2019; 이민술·정상우,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우려, 공감, 반대 등 다양하게 표출되며, 특히 주류 청소년들의 태도는 학교교육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ajaj & Suresh, 2018; Block et al., 2014). 따라서 난민 수용국에서는 난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난민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Taylor & Sidhu, 2012: 39). 이는 정주민 아동·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의 실태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유한별·이양희, 2021: 29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민에 관한 선행연구 중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 측면에서의 태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선운·안소현·박윤경, 2024: 71; Anderson et al., 2003: 2). 난민 문제 대응이 전 지구적 차원의 쟁점으로 주목받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에서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Barton & Ho, 2022: 197-200). 하지만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교육에서의 난민에 대한 태도 연구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난민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한 일부 연구(김정숙·박선미, 2022; 박선운·안소현·박윤경, 2024)가 수행되었을 뿐 주요 주제로 다루이지 않고 있다. 난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중 인권교육 측면에서의 연구 역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박미숙·손영화, 2019: 395).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대표성을 내재하고 있는 '2021년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사회에 내재하는 다양성은 사회적 자산의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기인하는 인종주의(racism), 이방인 혐오(xenophobia)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한다(황정미, 2010: 156).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방적 태도의 핵심은 관용과 다양성 존중이다(Banks, 2008: 2). 이 두 가치를 본질로 다양한 문화 집단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수용을 유발하는 태도를 다문화수용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안상수 외, 2012: 48).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간의 공존 가능성은 다문화수용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주민과 이주민 모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은 정의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수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형·김경근(2014: 59)은 정의적 측면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사람들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상황의 경우 그들을 자신의 의미 있는 타자로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자형·박현준·김경근(2014: 8)은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공존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정책의 수용여부를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의적 영역 중심의 다문화수용성 논의를 실천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수용 등 두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진단하는 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이 정련화되고 이 도구들을 토대로 한 조사연구가 축적되고 있다(구하라·성상환·모경환, 2021: 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수용성 지수 개발 작업으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KMCI)를 개발하였다(김이선 외, 2022: 18). 하지만 초기의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KMCI)는 한국인의 특수성으로 알려진 이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중성은 외국인의 출신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집단별 차이를 두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2년 뒤 후속 연구에서는 이중성을 반영하여 ‘보편성’을 추가하였고 한국적 문화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안상수 외, 2012: 52-55). 그 결과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를 초기의 ‘다양성’, ‘관

계성' 두 차원에서, '보편성'을 추가하여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차원은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총 8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던 우리사회의 현실을 다문화수용성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우리사회의 특수성에 맞춰 정교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세 차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차원은 타 집단의 문화와 유산 및 정체성 등의 가치를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에 속한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김이선 외, 2022: 19).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관계성' 차원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김이선 외, 2022: 21).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소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포함한다.

셋째, '보편성' 차원은 이주민 집단에 대한 수용 또는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나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세우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김이선 외, 2022: 21). 보편성 차원의 하위요소는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로 구성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

차원	하위요소	개념 및 측정
다양성	문화개방성	-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 - 지역사회 혹은 이웃으로 외국 이주민과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도 - 개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국민정체성	-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 됄에 대하여 생각하고 누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 - 국적, 한국어 능력, 전통적 음식 선호, 생득적 지위가 다른 것에 대해 승인적 태도를 취하는 정도
	고정관념 및 차별	- 외국인 이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의 정도 - 외국인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의 경향성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 주류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성향

		- 소수자인 외국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적 문화 풍습에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
	거부·회피 정서	-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 출신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 형성에서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도 -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피부색과 출신지역이 다른 이주민, 외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불결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
	상호교류 행동의지	- 다문화적 배경의 이주민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맺고 실천하려는 의지 - 다문화적 배경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의지
보편성	이중적 평가	- 경제발전수준,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 시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
	세계시민 행동의지	-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빈곤,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의지 및 행동 지향성

출처: 안상수 외 (2012). pp. 53-59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적 자질로서의 총체적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갈등과 혐오 표현이 점차 낮은 연령에서 촉발되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함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난민의 개념과 난민에 대한 태도

사회 구성원들은 매체 등을 통해 난민 문제를 접하지만, 대부분은 난민이 누구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김정숙·박선미, 2022: 48). 이러한 측면은 난민의 개념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¹⁾

1) 난민 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난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한다. 예컨대 박선운·안소현·박윤경(2024: 53)은 사회과학에서 ‘난민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는데, 연구자들은 난민을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국제법적인 접근과 현실적으로 난민을 보는 시각을 제시한 뒤, 지구적 연대를 바탕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타자라고 보는 시각”과 “전 지구적 부담 인구” 또는 “고 비용 부담 인구”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음을 균형있게 논의한다. 이에 반해 난민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들은 대다수 국제법에 기초하여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송주영, 2017; 이민술·정상우, 2024).

난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민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은 이동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신 국가를 떠나는 맥락은 전혀 상이하다(Roy & Roxas, 2011: 523). 유엔난민 기구에 따르면 이주민은 자발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반면, 난민은 한 국가의 시민이거나 무국적자이지만 박해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의견을 이유로)로 인해 공포감을 가지며,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Kilcan & Şimsek, 2021: 396). 즉, 이주민의 개념에는 자발적인 이주가 포함되지만, 난민의 개념에는 강제성을 가진 이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인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역사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성과 고통을 경험하는 집단을 난민이라고 지칭한다(Barton & Ho, 2022: 197).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이와 같은 구별을 토대로 난민에 관한 법적 지위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위의 정의에 따라 ‘난민법’에서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유엔난민 기구가 자신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포함시키고 있는 특정 난민, 예컨대 경제, 기후, 전쟁 난민 등에 대해서는 그 보호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용호, 2007: 315). 즉, 난민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수가 급증하면서 난민협약에서 제시한 요건과 현실 간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숙·박선미, 2022: 49). 따라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기초한 난민 정의는 난민의 자격요건을 제한적이고 협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선희, 2022: 131).

난민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난민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성을 요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Celik, Kardaş Isler, & Saka, 2023; Taylor & Sidhu, 2012). 이런 측면에서 UN은 난민협약을 통해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박순용, 2015: 92). 이에 우리 사회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2023년 난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자는 10,3760명이지만, 난민 인정자는 총 1,439명으로 나타나 인정비율은 1.3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난민인권센터, 2024). 이는 OECD 평균 약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난민 수용 절차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고, 우리 사회가 난민 수용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요컨대 난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요소는 정주민이 갖고 있는 난민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난민 인식, 난민 수용성 등으로 학술연구에서 기술되고 있으나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정서 및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유한별·이양희, 2021; 이정연·엄재근, 2019). 난민에 관한 연구가 국내보다 활성화된 국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주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Anderson, 2018; Anderson & Ferguson, 2018), 난민에 대한 정보 부족과 편견(Pedersen, Attwell & Heveli, 2005), 범죄율 증가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느끼는 실질적 위협(Esses, Hamilton, & Gaucher, 2017), 국가의 가치, 규범, 종교, 정체성 등을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상징적 위협(Esses, Hamilton, & Gaucher, 2017; Lindert et al., 2009) 등이 주로 연구된 설명 요인들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난민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이다(Murray & Marx, 2013). 이 연구는 이주민의 유입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주민보다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난민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으며,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인해 본국을 떠나야 하는 피해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회 추구를 이유로 지역 사회에 정착하려는 경우가 많아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 일자리 위협, 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주민이 보인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차이는 두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다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한 태도 연구가 극히 드물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 연구와 관련한 다문화수용성 연구에 난민에 대한 태도를 다루었다(유한별·이양희, 2021; 이정연·엄재근, 2019). 이는 다문화수용성 개념이 난민에 대한 태도를 내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한정된 설문지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 결과를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장한 것이다. 난민은 정치적 격변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원 부족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다른 이주민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난민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송주영, 2017; Roy & Roxas, 2011).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난민에 대한 태도를 유추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학 분야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교 기반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난민의 사회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Bajaj & Suresh, 2018; Suárez-Orozco, Pimentel & Martin, 2009). 우리보다 앞서 난민 문제가 쟁점이 된 호주에서는 난민 문제로 인해 이미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난민에 관한 언론과 정치인의 허위, 과장 진술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고정관념, 차별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의 일선 학교들은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Keddie, 2012: 1308). 포용적 학습 환경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용의 기풍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수용하는 문화 다양성을 강조한다(Taylor & Sidhu, 2012: 53). 다수의 참여 학교에서는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난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노력은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3. 다문화수용성과 난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차원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다. 이들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차원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집단 정체성과 민족주의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정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주민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nks, 2008: 16). 반면에 문화적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며, 이는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Berry, 1997).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은 특히 난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거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박미숙·손영화, 2019; 박순용, 2015; Lindert et al., 2009). 한편, 다양성 차원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국민정체성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인 국민정체성은 특정 국가 및 국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 조상과 문화적 유산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혈통적 모델과 정치적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시민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박서연, 2019; 윤인진·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은 타인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혈통적 모델로 측정되는 국민정체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김경근·이자형·이기혜, 2015; 김경은·윤노아, 2012).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난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혈통적 모델로 측정된 국민정체성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민술·정상우, 2024; Esses, Hamilton, & Gaucher, 2017).

둘째, 관계성 차원은 주류 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과 관련된 개념이며,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로 구성된다. 일방적 동화기대와 거부 회피 정서는 주류 집단의 입장에서 이주배경 구성원이 고유한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순응하기를 바라는 자국민 중심주의 성향을 지니며, 낮은 이주민들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부정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난민에 대해 낮은 감정을 갖고 있기에 다른 외국인에 비해 난민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주영, 2017: 97). 따라서 일방적 동화기대와 거부 회피 정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난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이주민과의 접촉은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회피 정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주민과의 친목 모임이나 친구 관계 형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인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오히려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2023)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다문화접촉 및 활동 경험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난민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난민과의 적극적인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난민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들을 수용하려는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편성 차원은 사람들이 가진 외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

도와 신념에 관한 개념이며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적 평가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와 관련된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태도 개념이다. 난민은 정주민 사회와는 다른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저개발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송주영, 2017; Roy & Roxas,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이 존재한다(이민솔·정상우, 2024; 황정미, 2010).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선진국 출신자와 저개발국 출신자가 전혀 다른 위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민의 특성과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고려할 때, 보편성 차원에서의 이중적 평가는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세계시민행동은 도덕적 규범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관대하게 인식하며,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빈곤, 기아, 인권 문제 등의 전 지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행동 의지를 의미한다(안상수 외, 2012: 55). 세계 시민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은 동등한 지위에서 민족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구성에 기여한다(Banks, 2008: 16). 즉, 세계시민성에 기반한 실천가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교류하는 등 인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위해 난민을 더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정연·엄재근, 2019: 130). 따라서 세계시민행동은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과 난민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주민과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김정숙, 2023),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이민솔·정상우, 2024). 또한 편의표집과 모집단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며(김정숙, 2023; 박미숙·손영화, 2019),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송주영, 2017; 이민솔·정상우, 2024; 이정연·엄재근,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다문화수용성은 성인기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김동진, 2019; 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실제로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구하라·성상환·모경환,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형성된 난민에 대한 태도는 이후 성인기의 난민에 대한 태도의 예측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다문화수용성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일부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학교 공동체가 난민의 정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

호적인 태도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인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인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2021년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자료 가운데 청소년 조사 설문지(KMCI-A)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에 의해 전국 총 200개 학교(중학교 100개교, 고등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 5,000명(중학생 2,549명 및 고등학생 2,4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김이선 외, 2022: 123).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의 결측치가 있는 사례 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4890명의 청소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는 연구 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연구의 대상

인구사회학적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444	49.9
	남성	2,536	50.1
학년	중1	821	16.4
	중2	843	17.0
	중3	877	17.6
	고1	764	15.4
	고2	886	17.8
	고3	789	15.8

지역규모	대도시	1837	36.9
	중소도시	2002	40.3
	읍/면	1141	22.7
경제수준	상	193	3.9
	중상	1129	23.1
	중간	3054	62.5
	중하	439	9.0
	하	75	1.5

2. 연구 변인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자료 가운데 청소년 조사 설문지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문항과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 자격을 신청 중인 사람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의 2문항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된 종속변인은 평균을 변인값으로 설정하였고, 그 값이 클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29으로 파악되었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다문화 수용성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차원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다. 각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구성요인은 다양성의 경우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이다.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이다.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로 구성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자료의 청소년용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자료는 34개 측정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차원인 다양성 13개 문항 간의 계수

는 .90, 관계성 13개 문항 간 계수는 .91, 보편성 8개 문항 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문화개방성(.831), 국민정체성(.832), 고정관념 및 차별(.840)이다.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893), 거부·회피 정서(.893), 상호교류 행동의지(.922)이다.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850), 세계시민행동의지(.777)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은 평균을 요인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은 다문화수용성은 환산점수를 0-100점 단위로 지수를 간명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별 가중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이선 외, 2022: 39).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점수 범위로 판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개인 간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자 한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제변인을 설정하였다. 난민에 대한 태도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다문화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다문화교육 경험과 다문화활동 참여 여부 등이 주요 예측변인으로 파악된다(강은진·모경환, 2023; 구하라 외, 2021; 송주영, 2017; 유한별·이양희, 2021; 이자형·김경근, 2014; 황정미, 201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비의도적이고 피상적인 직접접촉 경험, 의도적이고 친밀한 직접접촉 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성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여부는 이분변인으로 성별은 여성과 남성은 각각 0과 1이며, 다문화교육 경험과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여부는 아니오=0, 예=1로 설정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상층=5, 중상층=4, 중간층=3, 중하층=2, 하층=1로 역부호화 하였으며, 의도적이고 친밀한 접촉 또한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없음=0, 2주 1회 미만=1, 주1회 이상=2, 거의 매일=3으로 역부호화한 측정값을 사용했다. 나머지 학년과 비의도적이고 피상적인 직접접촉 경험은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설명 및 변인값

변인명		설명	
종속변인	난민 수용성	난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는 4점 척도, 2문항 평균	
독립변인	다양성	문화개방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와 같이 문화개방성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국민정체성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는 어렵다’와 같이 국민정체성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고정관념 및 차별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끼리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면, 되도록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겠다’와 같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5문항 평균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와 같이 일방적 동화 기대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거부 및 회피정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와 같이 거부 및 회피정서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5문항 평균
		상호교류 행동의지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도 함께 초대하고 싶다’와 같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보편성	이중적 평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와 같이 이중적 평가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세계시민 행동의지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와 같이 세계시민 행동의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6점 척도, 4문항 평균
	통제변인	성별	여성=0, 남성=1
학년		중1=1, 중2=2, 중3=3, 고1=4, 고2=5, 고3=6	
경제적 수준(역부호)		하=1, 중하=2, 중간=3, 중상=4, 상=5	
다문화교육경험		없다=0, 있다=1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없다=0, 있다=1	
비의도적이고 피상적인 집적접촉 경험		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을 보는 정도를 묻는 5점 척도, 1문항	
의도적이고 친밀한 집적접촉 경험(역부호)		친구 중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만나거나 대화하는 빈도를 묻는 5점 척도, 1문항의 평균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들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때 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결론을 내린다. 요컨대 다문화수용성의 각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면 청소년의 난민 태도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이 입증될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청소년이 지각한 난민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61점이며, 표준편차는 0.74이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상호교류 행동의지, 거부·회피 정서, 고정관념 및 차별, 국민정체성, 이중적 평가, 일방적 동화기대, 문화개방성, 세계시민행동의지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인					
난민에 대한 태도	2.61	0.74	1.00	4.00	
독립변인					
다양성	문화개방성	65.51	18.51	0.00	100
	국민정체성	71.89	19.98	0.00	100

	고정관념 및 차별	74.82	18.65	0.00	100
관계성	일방적동화 기대	65.95	20.22	0.00	100
	거부회피 정서	76.87	19.74	0.00	100
	상호교류행 동의지	78.06	18.65	0.00	100
보편성	이중적평가	68.83	21.92	0.00	100
	세계시민행 동의지	64.92	20.05	0.00	100

통제변인

성별	0.51	0.05	0.00	1.00
학년	3.49	1.69	1.00	6.00
경제적 수준	3.19	0.70	1.00	5.00
다문화교육 경험	0.53	0.49	0.00	1.00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	0.83	0.27	0.00	1.00
비의도적이고 피상적인 직접접촉 경험	3.07	0.80	1.00	5.00
의도적이고 친밀한 직접 접촉 경험	0.59	1.01	0.00	3.00

2.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가설은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난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모형은 $F=138.232$, $P<.001$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형의 설명력은 29.8%(수정된 R제곱은 29.6%)로 확인된다. 둘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5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2.7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다양성 차원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문화 개방성($t=22.032, p=.000$)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고정관념 및 차별($t=-2.601, p=.009$)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 차원 중 일방적 동화기대만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유의수준 .05에서 일방적 동화기대는 $t=-.066, p=.000$ 으로 파악되었다. 즉, 일방적 동화기대는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다문화수용성의 보편성 차원에서는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 모두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유의수준 .05에서 이중적 평가($t=-7.138, p=.000$)은 부적효과를 나타냈으며 세계시민 행동의지($t=12.986, p=.009$)는 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따르면 문화 개방성, 세계시민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일방적 동화기대, 고정관념 및 차별 순으로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통제변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활동 참여($t=2.438, p=.015$)는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년($t=-13.303, p=.000$)과 의도적이고 친밀한 접촉($t=-2.512, p=.012$)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다문화 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변인	B	S.E	β	t-ratio	p-value	F	R ² (adj R ²)
난민에 대한 태도	(상수)	1.682	.116		14.489 ***	.000	138.232 ***	.298 (.296)
	문화 개방성	.331	.015	.296	22.032 ***	.000		
	국민 정체성	-.002	.012	-.003	-.167	.867		
	고정관념 및 차별	-.041	.016	-.051	-2.601 **	.009		
	일방적 동화기대	-.066	.011	-.091	-5.849 ***	.000		

거부회피정서	.010	.014	.013	.683	.494
상호교류행동의지	-.023	.014	-.029	-1.657	.098
이중적평가	-.076	.011	-.113	-7.138 ***	.000
세계시민행동의지	.143	.011	.194	12.986 ***	.000
성별	-.008	.019	-.006	-.442	.658
학년	-.073	.005	-.166	-13.303 ***	.000
경제적 수준	-.013	.013	-.013	-1.051	.293
다문화 교육 경험	.004	.018	.003	.237	.812
다문화 활동 참여	.082	.034	.031	2.438 *	.015
비의도적 피상적 직접접촉	-.013	.012	-.014	-1.110	.267
의도적 친밀한 직접접촉	-.023	.009	-.031	-2.512 *	.012

주: *** p<.001, ** p<.01, * p<.05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의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 개방성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고정관념 및 차별은 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문화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도출하였다. 문화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이주민에게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요하기 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김동진, 2019; 이자형·박현

준·김경근, 2014). 즉, 문화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문화 개방성은 난민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이민술·정상우, 2024; 이정연·엄재근, 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문화 개방성을 제고한다면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 결과는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미숙·손영화(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고정관념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에 정서적으로 힘들음을 고백했다. 특히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은 난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거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 난민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난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난민을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와는 달리 무비판적으로 차별·배제하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즉,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이에 대한 반편견 교육과 같은 교육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에서 일방적 동화기대는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난민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민술·정상우(2024)의 연구에서는 일방적 동화기대는 성인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정연·엄재근(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이민술·정상우(2024: 82)는 일방적 동화기대를 난민 집단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가치를 버리기를 바라는 일방적 동화기대는 지배문화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측면을 내재한다. 동화주의 신념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방적 동화기대는 그 신념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김혜숙 외, 2011: 55). 이러한 신념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켜 난민에 대한 차별·거부·회피 정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숙, 2023: 205). 해당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일방적 동화기대는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수용성의 보편성 차원에서 이중적 평가는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중적 평가 태도를 가질수록 난

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적 평가는 인종·국적에 따른 이중적 잣대를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난민을 평가한다면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민술·정상우, 2024: 83).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중적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와는 다른 학교 구성원들과의 생활경험을 통해 관용, 존중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즉,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문화 집단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출신 지역이나 인종적 배경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보이는 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난민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난민에 대한 태도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송주영, 2017; 이민술·정상우, 2024; 이정연·엄재근, 2019).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관련해 성인들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지구공동의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송주영, 2017: 111). 이와 유사하게 세계시민 행동의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빈곤,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박순용, 2015: 9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세계시민 행동의지가 높은 시민일수록 난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편견적 시각이 아닌 우리사회의 동일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난민 수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의 세계시민행동의지는 64.92점으로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계시민행동의지가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아니지만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 학년, 의도적이고 친밀한 접촉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로,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은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등학생의 다문화접촉 및 활동 경험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난민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진 김정숙(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문화 활동의 참여 경험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학년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 점수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대상의

가장 어린 시기인 중1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난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의도적이고 친밀한 접촉은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접촉의 질이 중요한 매개 변수라는 것이다. 즉, 만남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 만남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난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이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차별, 배제, 불편함 등을 느낀다면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과 구별되는 난민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을 ‘위한’ 연구와 함께 난민에 ‘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때 학습자는 난민에 대한 인식 형성과 난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박선운·안소현·박윤경, 2024: 70). 이를 고려한다면 사회과에서는 정보에 입각해 다른 이주 집단과 구별되는 난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과 권리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난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며, 난민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난민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유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다면 난민에 대한 청소년의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에서 난민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난민의 다양한 상황과 목소리를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난민 문제의 적용 방안에 관해 논의한 박순용(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난민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며, 난민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각적인 문제를 단순화하지 말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과에서 이는 난민의 실제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 인터뷰, 문학작품 등을 활용하는 수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접근은 학생들이 난민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포용적이고 인도적인 태도, 즉 세계시민 행동의지

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셋째,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에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한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공감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022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9사(일사)11-03]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문제 중 난민 등 시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쟁점을 선정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 이를 고려한다면 정보에 입각해 난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방적인 교실 분위기 속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한가에 관한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난민 집단에 관해 소외와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며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국제적인 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갖고 있는 난민에 대한 태도 연구가 극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주민과 구별되는 난민의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였다. 이는 시민교육과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이주와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난민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에서 난민 관련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진·모경환(2023). 이주배경 집단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간접 접촉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5(4), 155-183.
- 구하라·성상환·모경환(2021).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요 타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4), 61-80.
- 김경근·이자형·이기혜(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28.
- 김경은·윤노아(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123-140.
- 김동진(2019).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시민교육연구**, 51(1), 1-26.
- 김선희(2022). 기후난민의 인권 보호-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8(2), 127-156.
- 김이선·최윤정·정연주·장희영·이명진·양계민(2022). **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숙(2023). 고등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 활동 경험과 난민 수용성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185-213.
- 김정숙·박선미(2022). 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서의 난민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47-63.
- 김혜숙·김도영·신희찬·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난민인권센터(2024). 국내 난민 현황(2023.12.31기준). <https://nancen.org/2397> (검색일: 2024. 3. 6.)
- 박미숙·손영화(2019). 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10), 3.
- 박서연(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

- 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19-31.
- 박선운·안소현·박윤경(2024). 한국과 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난민 교육 내용 분석. **열린교육연구**, 32(2), 49-77.
- 박순용(2015). 난민문제를 통해서 본 세계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77-99.
- 송주영(2017). 난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분석: 2015년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7(1), 86-120.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한별·이양희(2021). 청소년용 난민수용태도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28(2), 291-322.
-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민술·정상우(2024). 다문화수용성이 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1), 67-86.
- 이용호(2007).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311-338.
- 이자형·김경근(2014). 한국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2(4), 55-81.
- 이자형·박현준·김경근(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41(3), 5-34.
- 이정연·엄재근(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o Refugee Acceptance Recognition. **국제지역연구**, 23(4), 123-148.
- 홍승표(2023).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55(4), 27-57.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황태연·유정모·김화연(2022).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127-166.
- Anderson, J. (2018).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s asylum seekers in Australia: Demographic and ideological correlates. *Australian Psychologist*, 53(2), 181-191.
- Anderson, J., & Ferguson, R. (2018). Demographic and ideological correlates of

- negative attitudes towards asylum seekers: A meta analytic review.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0(1), 18-29.
- Anderson, A., Hamilton, R., Moore, D., Loewen, S., & Frater-Mathieson, K. (2003). Education of refugee children: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best practice. In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refugee children* (pp. 1-25). Routledge.
- Bajaj, M., & Suresh, S. (2018). The “warm embrace” of a newcomer school for immigrant & refugee youth. *Theory Into Practice*, 57(2), 91-98.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Pearson. 모경환·최충욱·김명정(공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rton, K. C., & Ho, L. C. (2022). *Curriculum for justice and harmony: Deliberation, knowledge, and action in social and civic education*. Routledge. 웅진환·장유정·김진아(역)(2023).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기: 역사비평사.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lock, K., Cross, S., Riggs, E., & Gibbs, L. (2014). Supporting schools to create an inclusive environment for refuge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8(12), 1337-1355.
- Celik., S., Kardaş İşler, N., & Saka, D. (2023). Refugee education in Turkey: Barriers and suggested solutions. *Pedagogy, Culture & Society*, 31(4), 687-705.
- Esses, V. M., Hamilton, L. K., & Gaucher, D. (2017). The global refugee crisi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 attitudes and facilitating refugee resettlement.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1(1), 78-123.
- Keddie, A. (2012). Pursuing justice for refugee students: Addressing issues of cultural (mis) re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6(12), 1295-1310.
- Kılcan, B., & Şimşek, Ü. (2021). Investigat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regards to migrant, refugee, asylum-seekers concepts. *Participatory Educational Research*, 8(1), 395-408.

- Lindert, J., von Ehrenstein, O. S., Priebe, S., Mielck, A., & Brähler, E. (2009). Depression and anxiety in labor migrants and refugee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69(2), 246-257.
- Murray, K. E., & Marx, D. M. (2013). Attitudes toward unauthorized immigrants, authorized immigrants, and refuge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3), 332.
- Pedersen, A., Attwell, J., & Heveli, D. (2005). Prediction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Australian asylum seekers: False beliefs, nationalism, and self estee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7(3), 148-160.
- Roy, L., & Roxas, K. (2011). Whose deficit is this anyhow? Exploring counter-stories of Somali Bantu refugees' experiences in "doing school". *Harvard Educational Review*, 81(3), 521-542.
- Suárez-Orozco, C., Pimentel, A., & Martin, M. (2009).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s: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among newcomer immigrant youth. *Teachers college record*, 111(3), 712-749.
- Taylor, S., & Sidhu, R. K. (2012). Supporting refugee students in schools: What constitutes inclusiv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6(1), 39-56.

ABSTRACT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dolescents' Refugee Attitudes

Hong, Seung Pyo(Teacher, Soongin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refuge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youth data from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t was confirmed that cultural openness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diversity dimension, while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had a negative effect. Second, in the relationship dimension, the one-sided assimilation expectation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refugees. Third, in terms of universality, the will to act as a global citizen confirmed a positive effect, but the double evaluation confirme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drew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overall attitude on refugees by adolescents. First,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es distinct from migrants was proposed. Second, when dealing with refugee issues in classroom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an deeply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various situations and voices of refugees. Third, in civic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refugee issue should be discussed, and through this, students should be guided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and social empathy skills. This could be actively carried out in civic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Keywords: refugees, attitude toward refugees, multicultural acceptance,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투고일자: 2024.05.17. 심사완료일자: 2024.06.15. 게재확정일자: 2024.06.15

홍승표: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음.
시민교육, 사회과교육,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있음. spccom@naver.com